

딥페이크 불법 영상 무차별 유포...선거 질서 흔들

광주·전남 1600건 적발...정교한 조작에 유권자 혼란 선관위, 삭제·차단 단속 강화...경찰도 2건 수사 착수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짧은 영상과 조작된 음성을 이용한 콘텐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현재까지 광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AI 기반 딥페이크 게시물 104건을 적발해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1500여 건이 확인되며, 전체 적발 건수는 1600건을 넘어섰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대부분 유튜브 쇼츠와 SNS에서 빠르게 퍼지는 1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거나, 기존 영상에 인공지능 음성을 입히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일부 영상에는 성인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가 등장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상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유권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

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중대한 위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AI로 정밀 가공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활용해 제작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SNS 등을 상시 점검하며 불법 게시물을 추적해 나가고 있다. 딥페이크 여부는 전용 감별 프로그램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하고,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범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관련된 사건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AI 영상 유포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건은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다. 경찰은 제작 과정과 유포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과 게시물을 두고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경선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이를 SNS로 확산시킨 관계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영광에서는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영암, 완도, 화순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제도 강화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의 제작·편집·유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와 경찰은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20	달림	18:13
맑음	18:54	달림	15:40



광주	8~16
목포	9~16
여수	11~15
순천	10~16
구례	10~16
광주	8~16
신도	11~17
목신도	7~13
진남	10~16
진도	8~15

목포	밀물(고)	01:42 / 14:06
	썰물(저)	06:58 / 19:18
여수	밀물(고)	08:51 / 21:11
	썰물(저)	02:33 / 14:50

광주 북구 '사랑의 밥차' 4월부터 달린다

400인분 제공...취약계층 밀집지역 6개소 순회

한 끼 식사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가 올해도 광주 북구 일대를 누빈다. 북구는 4월 1일 우산동을 시작으로 '2026년 사랑의 밥차'가 운영된다. 31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점심식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 사업의 하나로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랑의 밥차에는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800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20회(상반기 12회, 하반기

8회) 운영된다. 배식 장소는 △우산동공3단지 △오치주공1단지 △각화주공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두암주공2단지 △양산호수공원 등 6개소이며 매주 한 곳씩 순회한다. 해당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고, 400인분의 점심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밥차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12개 자원봉사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전, 음식 준비, 배식, 주번 정리 등 배식 과정 전반을 주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매화 향기 가득'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31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매화꽃 아래서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세월호, 실내 전시 전환...2028년 목포 고하도 이전

격납고형 '하우징' 도입...부식 차단·원형 보존 강화

전남 목포신항에 거처 중인 세월호 선체가 실내 공간에 전시된다. 장기간 야외 노출로 진행된 부식을 차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지역 주민과 유가족 단체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을 공개하고, 선체 이전 및 보존 방

안을 설명했다. 핵심은 '하우징(housing)' 방식 도입이다. 이는 대형 격납고 형태의 건축물을 설치해 선체를 완전히 덮는 방식으로, 외부 환경을 차단해 보존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물 내부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금속 부식과 구

조물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체는 현재 위치에서 약 2km 떨어진 고하도 인근 매립지로 옮겨진다. 이전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8년으로 예상된다. 대형 선체 이동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 경로에 대한 도로 보강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동 전후에는 선체 상태를 고려한 보존 처리도 병행될 예정이다. 원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돈 안 빌려준다고 차량 방화

만년필 ○...연 세월 알고 지내던 지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격분해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이 긴급 체포. 광주 광산경찰청은 31일 일간진 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경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래 알고 지내던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불을 낸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B씨의 차량 일부가 소실, 소방 추산 10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원영진 기자

장성 백양사역 공사장서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

장성군 백양사역 증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장성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28분 전남 장성군 백양사역 역사 증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장 지붕 철거 작업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

대 A씨가 채광창을 밟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주와 현장 책임자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장성=이향범 기자 ihb6699@

올해 수능 11월 19일...“적정 난이도 확보”

국어 (총 49개 문항)	공통과목 75% (수학, 문해) + 선택과목 25% (과학, 역사,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30)	공통과목 75% (수학 I, 수학 II) + 선택과목 25%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45)	필수과목 ※ 듣기평가(17문항, 25분 이내)
한국사 (20)	필수과목 ※ 필수응시
사회/과학탐구 (과학 20)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선택 가능
직업탐구 (과학 20)	6개 과목 중 최대 2개 선택 가능 -2개 과목 응시: 공통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택1 -1개 과목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택1
제2외국어/원문 (과학 20)	필수과목, 9개 과목 중 택1

출제 계획
• 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 간접 방식 문항 연계
연합뉴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올해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된다. 수능 문제와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50% 수준을 유지하고, EBS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림, 지문 등의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평가원의 공언대로 과목별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도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 출제'를 약속했지만,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불(火) 수능'이라는 말도 나왔다. 아울러 대대 증원에 따라 N수생 합류 규모가 늘 것으로 예상돼 변별력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김민희 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출제부터 검토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수능 출제 개선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어·수학 '공통+선택 과목'...한국사 미응시하면 '수능 무료' 처리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눠 시행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문항은 총 45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II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문항 총수는 30개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다.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로 실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이 출제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돼 수능 성적통지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당 문항 수는 20개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2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시된다.

평가원장 “영어 1등급 비율 철저히 점검할 것”

EBS 연계율 50%...“사교육 유리한 문항 배제”

△평가원 “사교육 훈련 학생에 유리한 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유지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기존 수능에 출제됐더라도 다시 출제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을 예년처럼 영어·과학·역사·문학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

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에 나온 도표, 지문, 그림, 소재 등을 덜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생각이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시험지구별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답안 표기에 쓰이는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라도 지급되다. 수험생들의 개별 지참도 허용한다. 샤프는 일괄 지급하며 흑색 연필, 흰색 수정제이브, 자우개, 샤프심(흑색·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다.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된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6일 발표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은 평가원 홈페이지(kice.re.kr)나 수능 홈페이지(suneung.re.kr)에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